

함평군, 베트남에 샤인머스켓 등 150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현지 프리미엄 시장 진출 발판 마련... 함평 농특산물 우수성 알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베트남 내 유통망을 보유한 한국 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Hand&Hand Company(대표 김민구)와 JM Group Co. Ltd.(회장 김정민)과 함께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음료 전문 전시회 'Vietfood & Beverage by Propack 2025'에 참가해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ABC주스, 홍도라지 진액, 미숫가루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당도, 크기, 신선도 측면에서 베트남 프리미엄 과일 시장의

수요와 부합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홍도라지 진액도 건강을 중시하는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현장 상담과 수출 협의가 이어졌다.

현지 반응에 힘입어 함평군은 베트남 전역에 신선과일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망을 보유한 Hand&Hand Company와 JM Group Co. Ltd. 등 두 기업과 샤인머스켓 100만 달러와 홍도라지 진액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계약은 함평 농산물이 베트남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첫걸음으로 안정적인 현지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함평군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농프레스를 통해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함평 농특산물



을 베트남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출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및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 관측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국제 유통망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샤인머스켓은 이



담양군,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력

담양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종합 지원정책으로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융, 임대료, 사회안전망, 판로, 공공요금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차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연 3%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2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관내 빈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월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12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약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월 2만 원을 적립해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보증과 더불어 교육, 컨설팅, 금융교육 등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20개 업체 181억 원, 올해 326개 업체에 91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막개비' 마케팅·홍보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착한 수수료 정책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음식접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음식점업 소상공인 350개소에 3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지급해 고정부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과 야간경관 전기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도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10개소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으며, 중앙로·메타프로방스·담양시장 등 주요 상권의 점등 전기료와 타이머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앙로 일대가 담양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경관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여름철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개인위생 실천을 당부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일 최근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손 씻기와 환경 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가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31주 차)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2.7명으로 직

접증 20.3명)보다 11.8% 증가했다. 여름철이 시작된 23주 차(3.4명)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에서 1천 명당 30.4명이 수족구병 의심 환자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18세 아동, 청소년층은 6.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

았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침, 콧물, 대변, 진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손, 발,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감소, 설사 및 구도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후, 환자 돌봄 후 반드시 손 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침구류 철저히 세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시설 내 위생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감염된 영유아는 전염력이 강해 증상 회복 전까지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강릉군 보건소장은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특효약이 없어 예방이 최선"이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생활화하고 감염 영유아는 완치 후 등원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교사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에 고향사랑기부했다니 쌀에 멜론까지

영암군, 특별 이벤트...담례품 쌀 증량, 추첨으로 멜론까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4~31일 고향 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영암사랑기부했다니 쌀에, 멜론까지?!'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우수 농산물을 맛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영암쌀인 달마지쌀, 학이머문쌀 10kg을 담례품으로 주문하면 기부 기간에 상관없이 1kg을 추가 증량해 주고, 특별 이벤트 기간 내 기부자 중 50명을 따로 추첨해 멜론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달마지쌀과 학이머문쌀은 청정 토양과 기후에서 재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암 대표 쌀이다.

영암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여름철 인기 농산물로 지역 인원에서 인기 있는 농특산물로 꼽힌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 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특별한 맛과 정성을 전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국 기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사람들의 길 찾기' 보성교육발전 포럼 준비 본격화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8월 5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핵심 특강인 「보성사회, 보성사람들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회 보성교육발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길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 허성균 상임이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제안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도출됐다.

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교육 실행 프로그램, 간담회, 최종 포럼 본행사 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보성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교육발전 포럼'은 지역 맞춤형 교육 비전 수립과 교육 주체 간 소통 장구 마련을 목표로 현장 중심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31일에는 '제4회 보성교육발전 포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 회의가 열려 준비위원회와 교육 주체별 그룹이 구성됐으며, 포럼의 공동 주제와 전체 구성 방향을 선정하는 협의를 거친 바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진도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진도군의 강한 의지 전달

진도군은 지난 1년 동안 계약, 보조금, 재정, 세정, 인허가 분야 등 진도군을 방문한 민원인 약 3,300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렴서한문에는 민원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나 부패행위가 있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진도군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 보고회, 캠페인 ▲1부서 1청렴 실천 활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이행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